

관절와 상완 관절염에서 견관절 치환술의 임상 결과

건국대학교병원

박진영 · 오경수 · 고덕환

목 적

관절와 상완 관절염의 유발 요인에 따른 임상 결과 및 부분 치환술과 전 치환술의 결과를 비교, 분석하고자 하였다.

대상 및 방법

1999년 11월에서 2007년 4월까지 36명, 38예에 견관절 치환술을 시행하였으며 이 중 최종 추시가 1년 이상 되었던 28명 30예를 대상으로 하였다. 이 중 부분 치환술은 19명 (Group HHA), 전 치환술 (Group TSA)은 9명에서 시행되었다. 환자의 분류는 관절와 상완 관절염의 유발원인에 따랐으며 비외상성 관절염 (Group A, n=17), 회전근개 파열 관절증 (Group B, n=6), 외상 후 관절염 (Group C, n=7) 으로 구분하였다.

결 과

Group A의 경우, VAS 점수는 술 전 7.0 점에서 술 후 0.75점으로 감소되었으며 ($p=0.016$), SST 점수는 술 전 2.6점에서 술 후 7.5점으로 ($p=0.013$), ASES 점수는 술 전 43.0점에서 술 후 84.5점으로 호전되었다 ($p=0.014$). Group B에서는, VAS 점수는 술 전 7.5점에서 술 후 1.0점으로 감소되었고 ($p<0.01$), SST 점수는 술 전 2.6점에서 술 후 7.7점으로 ($p<0.01$), ASES 점수는 술 전 49.6점에서 술 후 85.8점으로 호전되었다 ($p<0.01$). Group C의 경우 VAS 점수는 술 전 7.5점에서 술 후 2.6점으로 통증의 경감을 보였고 ($p<0.01$) SST 점수는 술 전 3.4점에서 술 후 8.8점으로 호전 되었으나 ($p=0.036$), ASES 점수는 술 전 54.7점에서 술 후 77.0점으로 ($p=0.082$) 통계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.

Group HHA에서는 VAS 점수가 술 전이 6.9점, 술 후가 1.5점이었고 ($p<0.01$), SST 점수는 술 전 2.9점에서 술 후 8.0점으로 증가하였다 ($p<0.01$). ASES점수는 술 전 47.3점에서 술 후 82.6점으로 호전되었다 ($p<0.01$). Group TSA의 경우 VAS점수는 술 전 8.7점에서 술 후 1.3점으로 감소하였으며 ($p=0.031$), SST 점수는 술 전 1.7점에서 술 후 7.7점으로 ($p=0.046$) 호전되었으며, ASES 점수는 술 전 45.3점에서 술 후 82.3점으로 증가 하였다 ($p=0.034$). 술 후 두 Group 간 VAS 점수, SST 점수, 및 ASES 점수에서는 통계적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.

결 론

외상 후 관절염을 포함하여 관절와 상완 관절염에서 견관절 치환술로 양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전 치환술과 부분 치환술 간에는 술 후 결과의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.